

# 우리는 언제 미쳤었던가?

-샌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여전히 미쳐 있는』,

류경희 옮김, 북하우스, 2023

전승민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

얼마 전 한국작가회의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다. <한국문학과 근대 합리성의 젠더성을 묻다>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은 “한국문학의 마녀와 광녀 형상을 통해 본 젠더 탐색”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는데, 발표된 글들을 정독해보니 부제가 사실상 학회의 핵심 주제였다. 발표자들은 한국 근대 문학과 최근 발표되고 있는 최신 문학 작품, 그리고 급부상한 1인칭 자기 서사 에세이들을 경유하여 텍스트로 형상화되고 있는 한국의 ‘미친’ 여자들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때 ‘미침’은 정상성의 바로 저 이편에서 도사리고 있는 모든 비정상성을 함축할 수 있는 포괄적인 표현형으로서, 가부장제와 이성애 중심성,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 이분법에 적용 아래 ‘여성’이라는 타자의 형질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 이는 근대성이 낳은 ‘여성’에 관하여 주목하는 작업들이었는데, 이때 논의되는 여성(성)은 모두 근대의 남성성과 가족 제도가 억압임을 고발하는 저항의 표지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친 여자’는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제도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실천의 주체로 의미화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중의 모순이 있다. 미쳤다는 것은 정상성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정상’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설정된 조건 하에서만 ‘미친’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 스스로가 미쳤다고 고백하는 목소리는 과연 정말 미친 자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 전에, ‘미친 여자’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하려 한다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현대의 고전으로 1979년 미국에서 출간된 『다락방의 미친 여자』(샌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지음, 박오복 옮김, 북하우스, 2022)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세기 영미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페미니즘을 통해 조명하는 이 책은 문학이라는 예술이자 학문이 여성 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투명한 ‘유리 천장’을 깨고 함께 전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요컨대 문학이 가장 정치적으로 일 수 있는 좌표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찬란하게 증명해낸다. 하지만 동시에, 두 여성이 저술한 이 페미니즘 시학이 독자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정신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던 것은 그들이 다루고 있는 작품이 오스틴과 밀턴, 브론테, 엘리엇, 그리고 디킨슨과 같은 19세기 작가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19세기는 페미니즘이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할 이데올로기들이 화려한 위세를

떨치던 시대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적인 미덕들, 섹스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재생산 해내던 무수히 많은 장치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여성에게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성 역할과 부자유한 당위들…….

그렇다면 20세기는 어떠한가? 20세기의 (미국) 페미니즘이 맞닥뜨렸던 악마적인 대타자는 무엇이었는가?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 샌드라 길버트와 수전 구바는 지난 2021년에 『여전히 미쳐있는』이라는 제목의 후속작을 발표했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처음 4개의 장을 통해 19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변화한 미국의 사회상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을 분석하며 각 시기마다 활발히 활동했던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계보화 한다. 이렇게 1950, 1960, 1970년대의 흐름을 짚어보는 작업은 70년대 미국에서 거대하게 폭발했던 페미니즘 운동과 페미니스트 시/소설에 월계관을 씌워주기 위한 목적 하에 놓인다. (『다락방의 미친 여자』가 1979년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두 저자의 학문적 성취가 70년대에 정점을 찍었으며, 『여전히 미쳐 있는』은 저자들이 페미니스트 비평가로서 1970년대를 그녀들의 ‘고향’처럼 느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나에게서는 훨씬 더 가깝게 와 닿는 1980년대와 90년대가 4부에서 한 데 뭉뚱그려져 있는 것은 그러므로 놀랍지 않았으나 꽤 아쉬웠다. 현재의 동시대성은 80년대부터 전지구적 차원에서 보편화 되기 시작한 소비 문화와 대중 문화의 양적/질적 팽창에서 비롯하므로, 만약 최근의 시대성(나날이 새로워지는 백래시와 멈추지 않는 혐오들)을 파악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축약된 4부가 보다 넓고 깊게 펼쳐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힐러리의 패배가 이 책의 구체적인 집필 계기로 작용했다고 밝히는 프롤로그에서 알 수 있듯, 길버트와 구바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전진하는 페미니즘의 물결이 21세기의 신자유주의와 그것이 여성/페미니즘에게 가하는 백래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으며, 또한 어떤 강압과 억압에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이 책의 집필을 통해 드러내 보인다.<sup>1</sup> 전작 『다락방의 미친 여자』가 19세기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대

---

1 “20016년 대선 이후 제2물결 페미니즘은 명백히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다. (…) 그토록 많은 성취를 이루어낸 시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리둥절해했

한 페미니즘 비평서라면, 『여전히 미쳐 있는』은 본격적인 문학 비평서라기보다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겪은 역동적인 사회·문화적 변화를 페미니스트의 시선에서 역사화 하는 문학적 아카이빙의 결과물이다. 실비아 플라스부터 에이드리언 리치,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지나 드워킨과 포르노 성 전쟁, 퀴어 이론의 등장, 그리고 벡델의 그래픽노블과 N. K. 제마이신의 SF 소설까지 이어지는 20세기 미국 페미니즘의 아카이빙은 그녀들이 “여전히 미쳐 있음”(still mad)을 외치는 증언의 집적체다.

앞서 제기한 ‘미침’의 이중적 모순 중에서 자신이 미쳤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과연 정말 광인의 목소리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실로 의미심장하다. 광기가 언어라는 기호 속으로 잠입하며 텍스트라는 표층으로 가시화될 때,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것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것은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정제된다. 요컨대 정련된 목소리는 결코 미친 자의 것이 아니다. 물론 실제로 ‘미친 여성’ 인물을 분석하는 비평적 작업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 책은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가 ‘미친 듯한’ 분노에서 출발했음을, 그리고 그 비평적 작업이 오늘날 겪고 있는 무수한 백래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우리’가 “여전히 미쳐 있”다고 주장한다.<sup>2</sup> 그러나, 그간 페미니스트 비평의 주요한 수사학적 도구였던 ‘미침’과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유효하지 않은 듯 보인다. 페미니스트들보다 세계 그 자체가 더욱 미쳐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문제와 끊이지 않는 전쟁, 상상할 수 없는 층위에서 다각도로 미시화 되는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말 그대로 정말 ‘미친’ 세상이기 때문이다. 상

---

다. 우리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다. 우리가 여전히 분노로 미쳐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의 미래를 쌓기 위해서, 우리는 페미니즘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해보기로 했다. 페미니즘의 성공과 실패가 극적으로 표출되었던 2016년 선거는 우리 세대가 1970년대에 배우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사실, 그리고 『다락방의 미친 여자』로 결실을 맺은 교재를 가르치던 학기에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사실을 여성과 남성이 거들거들 배워야 한다는 점을 증명했다.” 샌드라 길버트·수전 구바, 『프롤로그』, 『여전히 미쳐 있는』, 류경희 옮김, 북하우스, 2023, pp.19-20. 이하 모든 강조는 인용자.

- 2 “하지만 정말 문화가 변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와 우리의 많은 친구들은 여전히 미쳐 있을까? 격노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미쳤다는 것이다. 미친 듯 화가 나고 혼란스럽고 반발감이 치솟는다는 의미에서 미쳤다는 것이다.” 위의 책, p.15.

징계와 실재계 모두 실질적인 광기로 넘쳐흐르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이 책은 미국 여성 운동의 황금기였던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좀 더 멀게는 80년대와 90년대까지)의 역사를 재역사화하고, 퀴어 이론을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페미니스트 비평의 부피를 확장시키려 한다. 『여전히 미쳐 있는』은 지금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절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여성의 계보학적 말뚝(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국의 페미니스트 비평을 접해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입문서이자 개론서다.

각 챕터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작업은 생략하고자 한다. 책에서는 이미 많은 여성 작가들의 생애와 그녀들의 작품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는 것은 무의미할 테다. 윗세대 페미니스트들이 바라보는 21세기의 동시대성에 대한 시선이 궁금하여 이 책을 집어드는 독자들도 있겠으나 만약 그러한 기대가 전부라면 『여전히 미쳐 있는』은 그들에게 다소 실망어린 독서를 선사할 것이다. 나는 1990년에 태어난 퀴어-페미니스트 비평가로서 5부 <후퇴와 부활의 21세기>에서 다루어진 2000년대 이후의 문학 비평의 궤적을 계보화하고 아카이브 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길버트와 구바의 서술 양식에 의하면 2000년대와 2010년대, 단 두 개의 챕터만이 서술될 수 있겠으나 두 번의 십 년은 자유주의 진영의 페미니스트들의 ‘분노’에서 퀴어의 ‘웃음’으로 흐르는 정동적 변화를 목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한국의 경우, 대중문화의 포스트모더니즘이 본격화 된 90년대 후반부터 그 흐름이 시작되었고 미국의 경우는 80년대의 HIV/AIDS 위기를 계기로 그러한 양상이 강화되었다.)

미국과 달리 한국 문학에서 페미니즘 비평이 문학 운동으로서 보다 본격화 된 것은 해쉬태그 #문단\_내\_성폭력 고발 운동과 미투 운동이 발발한 2016년 이후다. 아직 십 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현재 발표되는 페미니즘 비평은 길버트와 구바의 수행,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그 안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생애 주기의 폭력과 유리 천장을 고발하는 19세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글 초입에서 언급한 심포지엄에서 읽었던 발표문들 대부분이 가부장적 남성성과 그것의 폭력성, 그리고 가부장제를 대타항으로 겨누는 것은 그러므로 (다소 아쉬울 지언정) 어색하지 않다. 물론,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문학장에서 퀴

어를 재현한 작품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페미니즘 비평은 비로소 퀴어의 존재론을 꺼안기 시작했지만, 비평은 문학에서의 ‘페미니즘’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원동력 그리고 연대자로서의 퀴어를 호명하고 있을 따름이다. 말하자면 『여전히 미쳐 있는』의 무의식, 이성애자 여성 중심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는 2020년대 한국 문학/비평장의 현재적 얼굴이다. (그러니 만약 이 책을 읽고 속이 시원하다거나 바로 ‘내’가 주장하고자 하던 것이라는 통쾌함을 맛본다면 당신은 아직 20세기의 물결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리라 감히 말해 본다.) 여성 혐오와 폭력의 문제는 선형적이거나 순차적인 해결 구도를 상정하지 않기에, 동시대의 여성 문제는 19세기나 20세기, 혹은 그보다 더 이전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포함한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현재화 하는 작업만이 행해진다면 이때의 동시대성은 다분히 비판의 안전망 속에서 (이미 ‘문제’로서 검증된 현안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안전한) 웅크리게 될 뿐이다. 페미니즘 비평의 동시대성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포섭하여 엮어내는 입체적인 작업 속에서 생성되어 왔고, 또 그래야만 한다.

페미니즘 비평의 미래는 무엇일까? 책의 계보에 적히지 않은 2030년대와 2040년대 페미니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흔들리는 1950년대”가 “폭발하는 1960년대”를 태어나게 하고, 1970년대의 급진적인 각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연쇄 효과를 떠올려 본다면, 가령, 고발과 해체, 전복과 저항이 더는 필요치 않은 극단의 자유를 누리는 페미니즘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정상성’에 기대지 않는 (여성의) ‘순수한’ 광기는 어떻게 포착될 수 있을까?) 새로운 세대의 퀴어-페미니스트로서 나는 길버트와 구바의 신작을 읽고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여전히” 미쳐 있다고 말하기에 이 책이 다루는 광기는 정말로 ‘여전한’ 이전의 시절에서 출발한 분노로 점철되어 있고, 그 광기가 70년대의 ‘여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판단을 유보하기 어렵다. 문학과 비평이 현재의 백래시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이자 최후의 수행이 이미 지난 세기에 행해졌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페미니즘의 황금기를 젊은 날 몸소 겪은 나이든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로 들린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미쳐 있음』은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여전한’을 주장해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방증하는 징후적 저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의 페미니스트 독자들이 이 책에서 특히 흥미롭게 읽을 만한 대목은 3부와 4부, 60년대와 70년대 미국 페미니즘 운동권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과 불화의 장면들이다. 가령, 베티 프리단은 ‘빌리티스의 딸들’과 같은 급진적인 레즈비언 단체들로부터 전미여성기구(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를 분리하기 위해 ‘라벤더 위협’(Lavender Menac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sup>3</sup> 당시 페미니스트들이 사투를 벌이던 가부장제와 이성애 문화/제도를 타파할 수 있는 최고로 ‘효과적인’ 좌표가 바로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던 이들과(그래서 케이트 밀렛은 실제로는 양성애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러 레즈비언으로 ‘거짓’ 커밍아웃을 하기도 한다. pp.205-207) 이에 반발하는 페미니스트들 사이의 갈등은 정말이지 부러울 지경이다.

한국 문학장에서 페미니스트들 간의 불화는 (적어도 내 눈에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 수많은 비평이 ‘페미니즘’을 외쳐왔고 심지어 페미니즘이 비평의 윤리적 강박과 정치적 올바름의 필수 요소가 되어 ‘페미니즘’이 아닌 비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서로를 적대시 하지 않는다. 한국 문학장의 페미니즘은 다양하지 않다. 퀴어와 장애의 몸들을 가시화 하고, 그간 이성애자 남성 문학 주체가 점유한 텍스트의 공간을 여성 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문학을 여성들의 안전지대로 만들기엔 여념이 없다.

그러나 애시당초 문학은 위협으로 가득한 공간이 아니던가? ‘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들이 텍스트 위로 적시되면서 (그것이 페미니스트의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아의 단단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너’로 위시되는 타자들의 공격과 위협에 노출된다. ‘나’의 방어적인 태도를 해제하고 기꺼이 타자의 이질성 안으로 녹아들어도 좋을 공간이 문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은 페미니즘을 도구로 여성들의 ‘나’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데에만 골몰해왔다. 한국의 페미니즘 비평은 ‘여전히’ 차이를 두려워한다. 서로 불화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견디지 못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까지 미처 ‘체대로’ 미치지도 못한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을 결합시킨 ‘우리의 페미니즘’만을 받아들이고 발화하는 (대부분의) 비평의 목소리는 ‘미친 여자’들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

3 앞의 책, p.206.

런 광기의 부재를 단지 운동이 발발한지 십 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물리적 조건으로 합리화하고 싶지는 않다. 만약, 페미니즘 운동에 ‘단계’가 있다고 상정한다면,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여성 운동에 투신해 온 미국 문학장의 역사를 우리의 문학적 전범으로 간주하는 일일 테다. 우리의 50년대와 미국 페미니즘 운동이 겪은 50년대, 그리고 우리의 동시대와 그들의 현재는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간극 속에서 발견되는 많은 차이들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동시대성이 얼마나 비동시적으로 구성되는지 알려주고, 더불어 여성이라는 공통 조건 속에서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이 보여준 문학적/역사적 성취와 한계는 오늘날 한국 여성/성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비판적으로 숙고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처럼 길버트와 구바의 신작 『여전히 미쳐 있는』은 현재 미국이 처한 국가적 백래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동시대성을 비판적으로 적극 타진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